



해외지역정보

폴란드

정치 불안으로 유로화 도입 지연 전망

□ 집권 법과 정의당, 불안한 연정 유지

- PiS당(법과 정의당)은 2006년 5월, SD당(자위당) 및 LRP당(폴란드 농민동맹당)과 보수연정을 결성한 후 SD당의 탈퇴로 일시적으로 연정이 붕괴되었으나 PiS당의 SD당 장관 복귀결정으로 연정이 재구성됨.
- 2006년 9월, 카진스키(Jaroslaw Kaczynski) 총리는 2007년도 예산안 및 파병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SD당 소속의 부총리 겸 농업부 장관인 레퍼(Andrzej Lepper)를 해임하여 SD당이 연정을 탈퇴함.
- 2006년 10월, 조기총선 시 정권장악 실패 우려로 PiS당은 레퍼 장관 복귀 결정과 함께 연정을 재구성하여 불신임 위기에서 벗어남.
- 집권 연정의 낙태 및 동성애 금지 등 가톨릭적인 가치관을 따른 보수정책 및 경제 개혁지체 등에 반감을 품은 유권자들의 투표로 2006년 11월 지방선거에서 PO당이 승리함.
- PO당의 득표율이 가장 높았으며(27.2%), 2005년 9월 총선 때보다 PiS당의 득표율(25.1%)은 상승한 반면, SD당(5.6%)과 LRP당(4.7%)의 득표율은 하락하여, 연정 내 PiS당의 발언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PiS당은 체제전환기의 국가보호실(UPO)에 의한 CA당(과거 PiS당) 활동 방해사건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돌리는데 성공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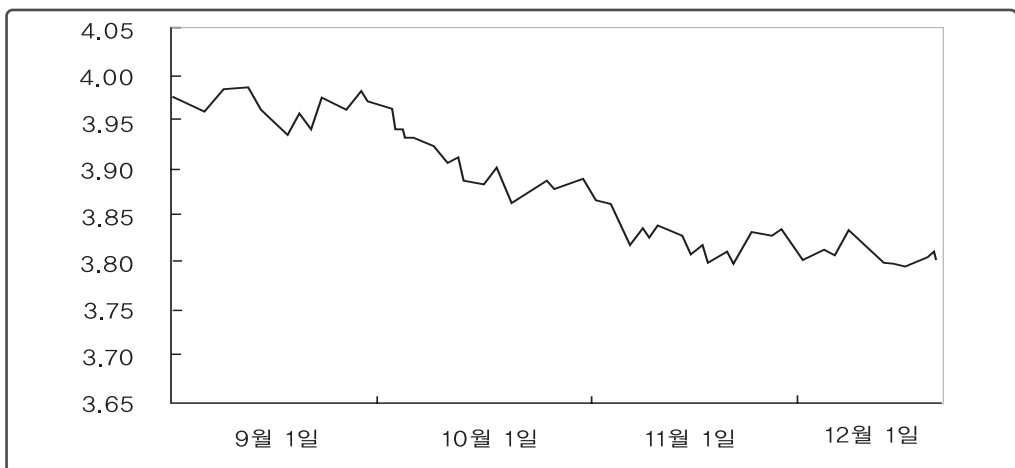


- 2006년 12월 7일, TVN TV의 길로우스카(Zita Gilowska) 재무장관 사임보도 후 동 보도는 길로우스카가 즉각 부인하였으나, 정부 내 내각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 된 것임.
- 길로우스카 재무장관은 과거 PO당의 주요인사로 카진스키 현 총리의 설득으로 현 정부 재무장관을 역임해 오다 지난 6월, 공산주의 시대의 비밀경찰 연루 혐의로 해임되었으나 이후 복직됨.
- 길로우스카 재무장관은 복지증대 등을 위한 정당의 재정지출 증대요구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등 시장에서 폴란드 공공재정의 옹호자 및 차기 중앙은행 총재 후보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점이 복귀의 주된 이유임.
- PO당은 PiS당에 대해 내년 초 조기총선 실시 약속을 대가로 예산법안 및 다른 주요 법안 지지를 제안함.
- 법과 정의당이 자주방위당에 대한 수사진행상황과 여론을 관망하며 동 제안을 고려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로서는 조기총선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 정치불안 속 즈위티화 강제기조 지속

- 9월 초 이후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과 폴란드의 양호한 경제지표로 인해 즈위티(Zloty)화의 강세기조가 지속됨.

<그림 1> 2006년 9월이후 EUR/PLN 환율변동



자료: Bloomberg, '06.12.21.

**<표 1> 환율 동향 및 전망**

환 율	2004년 평 균	2005년 평 균	2006년(4분기 추정/평균)				2007년 (추정/평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연간
유로당	4.531	3.98	3.85	3.941	3.97	3.89	3.91	3.95	3.92	3.93
달러당	3.65	3.21	3.19	3.15	3.12	3.05	3.12	3.04	2.99	2.98

자료: NBP, StatOffice, Bank BPH.

- 단기적으로 불안한 정치 환경이 유로화의 대 즈위티 환율의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러한 정치불안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호조 및 FDI유입 증가 등으로 인해 즈위티화의 변동성은 낮아지고 즈위티화의 강세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분석됨.

□ 정부의 유로화 도입 정책 현황

- 폴란드는 유로존 가입이 2003년 국민투표로 승인되었으나 정치 불안으로 인해 유로화 가입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차기 정권의 결정사항으로 남겨놓고 있으며 도입여부를 놓고 정치적 논란이 발생함.
 - 차기 중앙은행장 유력후보 중 한명인 그젤론스카(Ursula Grzelonska) 통화정책 위원회(Monetary Policy Council)위원은 지난 11월 17일, 언론인터뷰 중 유로화 도입에 따른 경제적 혜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폴란드가 유로존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하여 파문을 초래함.
 - 길로우스카 재무장관은 유로존 가입에 대한 대통령의 2010년 국민투표안을 재확인하면서 2009년까지 유로화 가입을 위한 제반조건 이행을 약속함.
- 폴란드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EU위원회에 제출할 Convergence Program 수정안을 승인, 2009년에 마스트리히트 경제수렴기준¹⁾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이는 노동생산성 향상, 실업률 하락, 수출 호조, 낮은 물가상승률 등 양호한 경제

1) 마스트리히트 경제수렴기준(Maastricht Economic Convergence Criteria): 1991. 12월,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개최된 EU 정상회담에서 정치통합도 포괄하는 유럽연합 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TEU)의 합의로 유로화 도입을 위한 5개 분야(물가, 재정, 정부채무, 금리 및 환율)의 필요 제약조건이 제시됨.



지표를 이유로 재정수지 적자를 2007년에 GDP의 3.4%, 2008년 3.1%, 2009년 2.9%로 유지함으로써 유로존 가입요건인 GDP의 3.0% 이내로 줄어나간다는 계획이며 2012년에 유로화를 도입할 예정이다.

- 마스트리히트 경제수렴기준 관련,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최근 1년간 최저 3개국의 평균 상승률 + 1.5%p 이내, 재정적자/GDP는 3% 미만, 정부채무/GDP는 60% 미만, 장기금리는 최근 1년간 최저 3개국의 평균정부채권수익률 + 2%p 이내, 환율은 가입 이전 2년간 ERM의 평균 환율변동 폭 ± 15% 이내를 만족시킬 것이 요구됨.

<표 2>

폴란드 주요 경제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2002	2003	2004	2005	2006*
경제성장률	1.4	3.8	5.3	3.5	5.2
소비자물가상승률	1.9	0.8	3.6	2.1	1.2
재정수지/GDP	-4.9	-4.4	-4.5	-2.9	-2.8
금리(은행간단기)	12.1	7.3	7.6	6.8	5.8
환율(유로화대비)	3.85	4.40	4.53	3.98	3.91

자료: IMF, IFS, December 2006 및 EIU, ViewsWire, December 2006.

□ 불안한 연정으로 유로화 도입 지연 전망

- 폴란드 정부의 Convergence Program 수정안은 낙관적인 성장 전제하에 작성된 것이며, 카진스키 대통령조차 수출 감소우려로 유로화 도입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등, 정치 혼란으로 유로화 도입을 위한 정책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2009년 마스트리히트 경제수렴기준을 충족한다는 폴란드 정부의 계획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조기총선 가능성 대두 등의 폴란드의 정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석진오】